

재무설계상담이 가계저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심현정(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박사과정)

최현자(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I. 서론

가계는 전통적으로 한정된 자원으로 재무적복지를 달성하기 위해 일생동안 벌어들이는 소득과 지출을 계획하고, 저축과 차용을 통해 기간간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가계재무관리를 수행해왔다. 그런데 최근의 사회경제적 구조와 금융환경의 변화는 가계가 외부의 도움없이 스스로 재무관리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 한국FPSB(2016)는 출산률 저하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평균수명의 증가에 따른 고령인구의 증가를 언급하며, 평균수명의 증가가 은퇴기간의 연장으로 이어지고 소득창출과 자산축적 기간보다 소득단절과 자산사용 기간이 늘어나, 인생 전반에 걸친 재무적, 비재무적 목표의 달성을 위해 다양한 영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계획, 실행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하였다. 또한 다양하고 복잡한 금융상품의 출현과 2000년대 이후 이어진 저금리 기조는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으나 금융소비자들은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 속에 개인과 가계가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대처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가계와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무교육과 재무상담, 재무설계 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그 중 재무설계는 개별적인 상담을 통해 가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재무적 문제점 뿐 아니라 지향하는 재무목표를 파악한 후 가계의 상황에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로 주목을 받았다. 우리나라에서 재무설계시장은 지난 2000년 미국의 CFP(Certified Financial Planner) 자격인증제도를 국내에 도입하면서 대중적인 발전을 시작하였고, AFPK(Associate Financial Planner Korea) 자격의 도입으로 국내에서도 재무설계전문가의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독립보험판매법인(GA, General Agency)에 속한 재무설계사들은 특정 금융기관에 속해 자사의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금융기관 직원과 달리 다양한 금융상품을 비교, 판매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보다 중립적이고 가계지향적인 입장에서 재무설계상담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2016년 상반기에 금융상품 제조·판매사에 소속되지 않고 중립적 위치에서 금융투자 자문을 하는 독립투자자자문업(IFA, Independent Financial Advisor)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다. IFA의 자문 범위나 인력수급, 자문료 체제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기존의 재무설계상담과의 유사점 및 차이점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필요하긴 하지만 개인과 가계가 보다 중립적인 관점에서 재무의사결정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재무설계상담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학계에서는 재무설계상담의 효과와 유용성에 관심을 두는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관련 연구들은 재무설계상담이 가계의 재무복지 향상에 기여하는가에 관심을 두었고 상담 전후, 또는 상담을 받은 집단과 받지 않은 집단의 저축 및 소

비지출, 가계재무비율의 변화를 살펴보았다.(오종윤·최현자, 2010; 오종윤·최현자, 2012; 오종윤·최현자·이지영, 2014; 오종윤·이지영·최현자·박주영, 2014; 김시월·조향숙, 2015 등) 그러나 재무적복지가 달성되었는지에 관점을 두다 보니 행태적 관점에서 가계 저축양식이나 저축포트폴리오의 구성의 변화를 살펴보는 접근이 부족했다. 또한 기존의 재무설계상담 효과에 관한 연구들은, 가계의 인구사회적(가구주의 연령, 가구원수, 직업 등) 요인과 가계경제적(소득, 자산 등) 요인이 저축규모나 저축률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영향요인을 고려하거나 통제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시장에서 실제 이루어진 재무설계상담이 가계저축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다양한 접근방법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향후 IFA도입 등 보다 확대될 재무설계상담에 대한 발전적 제언을 제공하고자 한다. 재무설계상담이 가계저축을 증대시킴으로써 재무목표의 달성에 기여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재확인하고, 가계 저축의 양적 측면 뿐 아니라 질적인 변화를 다룰 것이다. 또한 가계의 인구사회적, 경제적 특성과 재무설계상담의 효과는 어떤 관련성을 가지는지 고찰함으로써 재무설계안의 도출과 실행에 있어 고려할 요인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고찰

2.1 재무설계상담

2.1.1 재무설계상담의 개념

‘재무설계상담’은 그 자체의 개념적 의미를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으나, 용어으로써 현업과 학계에서 널리 활용되지는 않았다.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재무서비스로서 재무설계상담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다 전통적인 개념인 재무설계와 재무상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성영애 외(2006)는 소비자재무서비스 분야는 크게 재무설계, 재무상담, 재무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각각의 정의와 목표를 바탕으로 비교해보면 재무설계, 재무상담, 재무교육은 재무적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지만, 영역목표와 서비스의 효과, 서비스 내용에서 차이를 지닌다. 먼저 재무설계(Financial Planning)는 현재 또는 미래의 소득, 자산 등 재정자원을 보존시키고 증대하여 소비자 개인과 가계가 기대하는 생활양식에 적합한 재무 목표를 달성해가는 전 생애에 걸친 과정(이기춘 외, 1999; 성영애 외 2006에서 재인용)으로 정의된다. 재무상담(Financial Counseling)은 때로는 재무설계와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하고 재무설계상담 또는 재무컨설팅, 금융상담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소비자의 문제를 명확히 하며 이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작업(성영애 외, 2006)이다. 재무설계에 대해 임계희 외(2011)와 박광수 외(2010)은 개인의 인생목적을 파악하고 개인의 재무적, 비재무적 자원을 이용하여 그러한 목적을 달성해 나가는 과정으로 정의하였으며, 목표의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가계 자산관리의 과정으로 이해하였다.

Mason&Poduska(1986)은 재무설계사와 재무상담사의 구분에 관한 연구에서 두 영역은 고객문제의 유형, 고객의 자가평가 기준, 제공되는 서비스에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재무설계 고객들은 주로 과다 세금 등으로 인해 장기적인 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반면, 재무상담 고객은 재무적인 혼돈을 야기하는 문제에 직면한 경우가 많고 부채 문제로 인해 절망하는 등 삶의 통제력을 상실했다고 느끼는 등 보다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하였다. 고객서비스 측면에서 재무설계사들은 고객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투자 자산을 잘 관리하여 목표를 달성하게 돕는 것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반면, 재무상담사는 고객의 재무적 안정성을 위협하는 재무적 문제를 제거하고 줄이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일련의 연구에서 활용된 정의를 바탕으로 볼 때, 재무설계와 재무상담은 크게 대상 가계 및 소비자의 문제인식 정도와 그에 따른 해결목표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서비스 영역이나 범위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계 재무상태에 대한 평가에 있어 바람직하거나 문제가 되지 않는 현상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예를 들어 가계가 과다한 부채와 연체로 인해 신용등급의 하락이나 부채상환부담에 시달리는 경우는 명백한 문제 상태로 진단이 되지만, 수입의 대부분을 지출하느라 저축여력이 없어 은퇴를 대비한 저축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이를 문제로 볼 것인지 쉽게 답을 내리기 어렵다. 또한 가계의 재정적인 문제 상황이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재무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재무상담의 결과로 인한 재정적 문제 해결은 문제 상황의 탈피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재정 상태의 유지를 위한 계획수립이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개념적으로는 재무설계와 재무상담의 구분이 가능하지만, 현실의 소비자재무서비스 영역에서 둘을 구분하기란 쉽지 않다.

실제로 김준호(2011)의 재무설계 서비스 영역구분에 따른 사례연구는 40대 직장인 부부에 대한 상담 사례에서 재무상담, 재무설계, 재무교육적인 측면 각각에 대한 서비스가 종합적으로 제공됨을 보여주었다. 주소현 외(2012)는 2009 펀드 투자자조사의 문항을 활용하여 소비자의 재무상담 활용현황 및 관련요인에 대해 연구하면서 재무상담을 ‘개인의 재무상황을 파악하고 재무목표 달성을 위해 자산배분과 계획을 제시해 주는 상담서비스’로 정의하였고, 성영애(2012) 역시 엄밀히 보면 재무상담과 재무설계는 구분되는 개념이지만, 현실적으로 업계에서 재무설계를 하면서도 상담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설계 업무를 재무설계상담이라고 하여도 무방하며, 재무상담을 재무설계상담과 재무문제상담으로 구분하여 볼 수도 있다고 하였다.

오종운(2012)는 재무설계의 수행 주체를 강조하며 재무설계, 재무상담과는 구분되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재무설계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재무설계사가 재무설계과정에 관여하여 소비자와 함께 재무설계 단계를 진행하는 것을 ‘재무설계상담’으로 규정하였으며, 이를 가계가 스스로 수행하는 재무설계와 구분하였다. ‘재무설계상담’은 서비스의 내용이나 영역, 목표의 측면에서 재무설계, 재무상담과 다르지 않고 현실적으로 업계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실질을 표현하기에 적합한 용어로 사료되어 본 연구에서도 이 용어를 활용하기로 한다.

2.1.2 재무설계상담 현황 및 요구도

2008 펀드투자자조사 자료를 활용한 성영애 외(2012)에 따르면, 서울, 수도권 및 6대 광

역시에 거주하는 만 25-65세 성인남녀 2,530명 중 재무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약 23%였으며, 재무상담에 대한 평균 요구도는 4점 만점에 3.18점이고, 노후설계방법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높았고, 절세방법, 주택마련이나 부동산투자에 대한 내용이 그 다음으로 요구가 높았다. 연령이 낮을수록, 고졸자보다는 대졸자의 재무상담 요구도가 높았다. 가계특성으로는 비혼보다는 기혼이,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금융자산이 많고, 가계부채가 있는 경우에 재무상담 요구도가 높았다.

주소현 외(2012)는 2009 펀드투자자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는데, 조사대상자의 약 19.4%가 재무상담을 받았다고 응답하였으며 재무상담 내용으로는 노후설계방법에 대한 상담이 가장 많았고, 그 뒤로 목돈마련을 위한 저축관련 상담경험이 많았다. 향후 받고 싶은 상담영역에 있어서는 노후설계방법이 가장 많았고, 두 번째로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관련 상담, 주택마련이나 부동산 투자에 관한 상담 순으로 나타나 2008년 조사와 다소 차이가 있었다. 재무상담을 받은 집단은 받지 않은 집단에 비해 연령이 낮고, 교육수준이 높고, 전문·관리직과 사무직인 경우가 많고, 월수입, 금융자산, 부동산자산, 부채의 규모가 큰 경향을 보였다. 재무상담에 대한 비용지불의사에 있어서는 재무상담을 받은 집단의 54.1%, 재무상담을 받지 않은 집단의 경우 34% 만이 비용지불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최대지불의사 비용에 있어서도 재무상담을 이미 받은 집단의 경우가 다소 높았다.

2.1.3 재무설계 상담의 효과

재무설계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와 관심이 증대하면서 학계에서는 재무설계의 유용성과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재무설계 자체의 유용성과 효과에 대해 연구한 논문들과 전문가에 의한 재무설계 상담의 효과를 연구한 논문들로 구분됨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재무설계의 수행과 유용성에 대한 연구로 Elder & Rudolph(1999), Lusardi & Mitchell(2005), 최현자 외(2008) 등이 있다.

Elder와 Rudolph(1999)는 미국 HRS의 은퇴자 자료를 분석하여 은퇴 재무상담과 은퇴만족도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소득과, 재산, 결혼상태 및 건강조건이 같다고 할지라도 은퇴설계를 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은퇴설계가 재무적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Lusardi와 Mitchell(2005) 역시 2004년 HRS 자료를 이용하여 금융이해력과 재무설계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이때 재무설계 수행은 3단계로 구분이 되는데, 은퇴자금을 계산해 본 집단(simple planners, 전체의 31.3%)과 재무설계를 실행한 집단(serious planners, 전체의 21.1%), 그리고 앞의 두 단계를 포함해 계획을 지속한 집단(successful planners, 전체의 18.5%)으로 나누었다. simple planners는 가족이나 동료들을 통해 재무설계를 수행한 경우가 많았으며, successful planners는 은퇴관련 세미나 참여, 워크시트 활용, 재무설계사와 상담을 통해 재무설계를 하였으며 이들의 금융이해력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았다.

최현자 외(2008)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50세 이상의 은퇴자를 대상으로 재무설계의 각 단계별 재무관리행동의 수행 여부를 측정하였으며, 종속변수로 은퇴대비여부, 은퇴자금 및 소득의 충분성, 은퇴생활만족여부, 은퇴재정상태만족여부를 측정하였다. 이를 통해 완전 또는 부분적 재무설계의 수행이 은퇴대비와 은퇴생활의 재정적인 측면의 복지를 증진시키는지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부분 또는 완전 재무설계를 수행하고 있는 비율이 81.7%로 비교적 높

았고, 재무설계 단계별로는 제 1단계 재정상태평가(65.3%), 제 2단계 재무목표 설정(47.3%)을 했다는 비율이 높았고, 상대적으로 제 3단계 행동계획의 수립과 실행을 했다는 비중은 21.5%로 낮았다. 재무설계 형태별로 은퇴대비와 재정적 복지를 비교해 본 결과 완전재무설계를 한 집단이 부분재무설계나 재무설계를 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은퇴대비를 하는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고, 완전한 재무설계를 한 은퇴자들 중 57.7%가 은퇴자금이 충분하다고 인식한데 반해 부분적으로(24.2%) 또는 재무설계를 하지 않은 은퇴자(10.9%)들의 경우 은퇴자금이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확연히 낮았다. 은퇴소득의 충분성에 대해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은퇴생활만족도와 재정만족도의 경우에도 완전한 재무설계를 하는 경우 부분 재무설계나 재무설계를 전혀 하지 않는 은퇴자들보다 월등히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어 재무설계가 은퇴대비나 은퇴생활의 복지수준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연구자들은 단변량 분석에서 나아가 재무설계의 각 단계가 은퇴대비여부와 은퇴생활의 재정적 복지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재무설계의 단계 중 재무목표를 설정(2단계)한 경우 은퇴대비를 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은퇴자의 재정적복지를 높이는 것은 재무설계의 제 3단계인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단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문가를 통한 재무설계상담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로는 오종윤·최현자(2010, 2012), 오종윤 외(2014a, 2014b), 김시월(2015) 등이 있다. 오종윤·최현자(2010)은 재무설계 서비스 경험 여부에 따라 객관적, 주관적 재무복지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고, 재무설계 서비스 경험 여부가 가계의 포트폴리오에 차이를 가져오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해당연구는 ROTC 임관장교들을 재무설계상담 대상으로 선정함으로써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우나, 비교적 동질적 상황에 놓인 대상들이라는 점에서 다른 변수의 영향을 통제한 재무설계상담의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하였다. 연구결과 재무설계상담 경험여부에 따른 객관적 재무복지 수준에 있어 같은 급여를 받는 조사대상자들임에도 월 변동지출과 기타변동지출액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월저축투자액이나 저축률, 부채원금 및 월 상환액 등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동질적 상황에 처한 소비자에게서 재무설계상담 효과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은, 반대로 가계가 처한 상이한 상황이 재무설계효과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음을 생각해보게 한다. 주관적 재무복지 수준에 있어서는 재무설계상담을 경험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관적 복지의 다른 영역인 삶의 태도, 불안정도, 지출 및 저출패턴 만족도에서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한편, 재무설계상담 경험여부에 따른 금융상품 가입 및 상품별 월저축/투자액 차이를 분석한 결과, 재무설계상담을 경험한 집단이 주식형 펀드 월평균 투자액(34.94만원, 재무설계 비경험집단의 경우 10.72만원)이 유의하게 많았으며, 재무설계상담을 경험하지 않은 집단에서 청약상품 월평균 저축액이 2.97만원으로 1.08만원으로 응답한 재무설계상담 경험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재무설계상담 경험여부에 따른 자산포트폴리오 구성 현황 차이를 살펴본 결과 월 저축 금액의 포트폴리오에서는 재무설계 유경험자의 경우 투자액의 절반이 넘는 51.5%를 주식형 상품으로 구성하고 있는 반면, 무경험자의 주식형 상품 구성 비율은 18.5%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해당 연구는 재무설계상담 경험 여부가 재무복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제 사례를 자료로 하여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동일한 대상자를 바탕으로 상담 전후를 비교한 것이 아니어서 재무설계상담 경험의 직접적인 효과를 규명하지는 못하였다는 점과, 재무설계상담 경험 여부 집단에 따른 가계 포트폴

리오의 차이가 재무설계상담으로 인한 재무행동의 변화인지, 재무설계사의 영향인지, 개인의 위험성향의 차이 등 다른 요인으로 인한 것인지 구분할 수 없다는 점이 한계로 남는다.

오종윤 외 (2014a)는 독립판매법인(GA)에 소속된 재무전문가에 의한 재무설계상담을 받은 후(평균14개월 경과) 상담을 받은 44명의 주관적 및 객관적 재무복지 수준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은퇴와 관련된 재무관리태도, 재무관리능력, 재무만족도로 구성된 주관적 재무복지수준이 상담 후 유의하게 증가함으로써 재무설계상담이 은퇴설계에 있어 심리적 측면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객관적 재무복지수준의 변화로는 미과약지출과 생활비가 감소하고 저축을 늘리는 유의한 변화가 나타났고, 재무비율지표를 통해 분석한 결과 가계수지지표, 저축성향지표, 투자성향지표, 유동성 지표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된 모습을 보였다. 오종윤 외(2014b)는 기업체에서 비용을 지불하여 중업원 복지차원에서 이루어진 유료재무설계상담이 중소기업 종사자의 재무복지수준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연구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오종윤 외(2014a)와 마찬가지로 상담 전 후 2회에 걸쳐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해당 중소기업 중업원 35명을 대상으로 객관적 재무복지 수준과 주관적 재무복지 수준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재무설계상담을 받은 이후 중소기업 종사자들의 재무관리태도, 재무관리능력, 재무만족도가 대부분 긍정적으로 변화하였고, 단순재무지표와 재무비율지표들도 유의하게 개선되었다. 두 연구는 전문가에 의한 재무설계상담이 유의하게 객관적, 주관적 재무복지를 증대시킴을 보여주고 있으나, 사례 수의 제한 등으로 인하여,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재무설계상담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다. 또한 저축규모의 유의한 증대가 있음을 보여주었으나, 월저축의 구성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보여주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2.2. 가계 저축과 영향요인

가계 저축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는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가계의 저축 행동은 저축규모 및 저축률에 관한 부분과 저축 포트폴리오 구성에 관한 연구들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가계저축규모 및 저축률을 다룬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채정숙(1980)은 대구시 주부들의 저축에 관한 의식과 저축행위에 대한 분석에서 주부의 학력이나 연령, 소득 및 가족 수가 저축성향에 차이를 가져온다고 하였고, 백설희(1983)은 서울시 가구의 가구특성이 가계저축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가구주의 연령이나 주부의 학력, 결혼지속년수, 월수입, 미래소득에 대한 전망 등이 저축률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양정선(1991)의 연구는 가계저축에 대한 변수로 저축률, 총저축액, 월평균저축액을 활용하여 범위를 좀 더 넓혔는데, 이때 소득이 높을수록, 자가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경기전망이 낙관적일수록, 미래지향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자신의 상대적 소득수준을 낮게 인지 할때 가계저축률이 높음을 분석하였다. 월평균 저축액은 가족수와 주관적 경기전망, 가계관리능력, 상대소득 인지정도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양세정·이영호(1996) 연구는 가계저축규모(월저축액, 평균저축율, 저축보유액 및 순저축보유액)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해당 연구는 가계저축규모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가계소득, 가구원수, 취업자수, 가구주 연령, 가구주 직업, 교육정도, 주거형태 및 도시화정도를 가정하였으며, 연구결과 가계소득이 많을수록, 자가보다는 전세나 월세에 거주할수록, 서울보다는 중소도시에 거주할

수록 저축액이 많아지며, 가구원수가 많거나, 가구주 연령이 40대나 50대인 경우, 가구주 교육수준이 대졸인 경우 월저축액에 부적인 영향을 주었다. 평균저축률에 있어서 가계소득이나 가계의 취업자수, 전세거주 등은 평균저축률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가구주 연령이 높아질수록, 봉급생활자보다는 일용근로직일수록 평균저축률에 부적인 영향을 주었다.

심영(2012)의 연구는 가구주 근로유형과 가계저축을 예비적 저축행동 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연구자는 선행연구를 기초로, 가계소득, 가계자산, 가구주의 근로유형과 가계의 선호 및 기호(가구주 연령, 성별, 교육수준, 혼인상태, 소득계층, 가구원수, 주거유형, 부채, 공적이전소득)에 영향을 받는다는 이론적 모델을 세웠으며, 월평균 저축액, 월평균 저축률을 저축행동의 변수로 사용하였다. 2009년 복지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한 결과, 다중회귀분석 결과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상용직은 비상용직보다 월평균 저축액이 더 많았으며, 이러한 결과는 예비적 저축행동 이론에서 제시하는 기대인 불안정한 고용이 저축액을 더 늘릴 것이라는 기대와는 상반된 결과였다. 이에 대해 저자는 비상용직 가구주 가계가 예비적 저축 동기가 강하다 할지라도 낮은 현재소득 등의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저축할 경제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 이밖에 월평균 소비지출, 전세거주, 순자산, 기초보장의 보유가 월평균 저축액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가구원수, 부채 보유, 빈곤은 월평균 저축액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 월평균 저축률에 있어서는 상용직이 비상용직보다 월평균 저축률이 높았고 남성가구주, 순자산, 기초보장 보유가 월평균 저축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월평균 총소비지출, 가구원수, 부채보유, 빈곤이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대체로 월평균저축액의 영향요인과 유사하였다. 한편, 가구주 근로유형이 상용직이나 비상용직이나에 따라 월평균 저축액 및 월평균 저축률에의 영향요인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정숙(1996)은 주관적, 심리적 요인이 가계의 저축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는데, 이때 저축행동으로 가계의 월평균 저축수준과 저축율을 변수로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가계의 소득수준은 가계의 월저축수준을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인이지만 저축율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의 저축행동을 설명하는 데 있어 저축·소비에 대한 의식보다는 저축의 동기가 더 많은 영향을 미치며, 소비에 대한 의식보다는 저축에 대한 긍정적 의식이 더 의미있는 변수임을 보여주었다. 주부의 학력, 연령, 성역할태도 등은 가계의 저축행동에 직접적으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긍정적 저축의식이나 유산·인색 동기 및 독립·투자 동기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가계의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통해 가계의 저축행동을 설명하던 기존의 연구와는 다소 다른 결론을 보여주었다.

성영애·공은희(2007)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6차년도(2003)자료를 활용해 가계특성에 따른 저축목적의 변화와 저축목적에 따른 저축행동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주된 저축목적으로 결혼/상제비, 기타, 주택마련을 저축목적 1순위로 응답한 가계의 월평균 저축규모가 약 74~79만원 수준으로 높았고, 자녀교육비와 노후생활대비를 1순위로 응답한 가계의 저축규모는 62~65만원 수준, 불의의 사고 및 질병대비에 응답한 가계의 월평균 저축규모는 35만원 대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저축목적에 따른 월평균 저축률 또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일련의 연구를 종합하면, 인구사회학적 측면에서 가계재무관리자 또는 가구주의 연령이나 학력, 직업, 가구주의 근로유형, 가구원 수와 주거형태, 거주지역 등이 저축규모와 저축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며, 가계의 경제적 특성인 월 소득 역시 중요한 영향요인이었다. 미래소득에 대한 전망이나, 저축 및 소비에 대한 의식과 동기, 저축 목적 등의 주관적, 심리적 요인도 가계저축규모와 저축률에 영향을 주었다.

한편, 가계의 월저축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관한 연구들은 가계가 매월 저축금액을 어떤 저축수단이나 자산군에 분배하는지, 그 영향요인은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최현자·김정현·김민정(2008)의 연구는 저축에 대한 4단계 의사결정과정(저축여부 결정, 저축액 결정, 저축수단 선정, 저축수단별 비중 결정)에 있어 유형별 소득계정, 위험감수도, 재무목표 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고찰하였다. 해당 연구는 가계의 저축행동을 의사결정의 과정으로 이해하였다는 점, 각 단계 별로 영향요인을 각각 살펴보았다는 점과 행동학적 생애주기가설에 따라 소득계정에 따라 저축행동이 달라진다는 가정을 하였다는 점, 서로 다른 유형의 저축수단들 간의 상호관련성을 살펴본 것이 특징적이다. 한국노동패널 7차년도(2004) 자료 분석 결과 우리나라 가계는 보장성보험과 예·정금을 대표적인 저축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고, 한 종류 이상의 저축수단으로 저축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었다. 가계의 저축의사결정 단계별 결정요인을 살펴본 결과 각 단계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소득이나 순자산, 가족의 생애주기, 취업상태, 교육수준, 혼인상태, 자녀유무 등이 영향을 미쳤으며, 과소비 여부나 대비나 자산증식 목적의 재무목표 수립여부, 부채 보유 여부도 중요한 영향 요인이었다. 특히 4단계의 저축수단(예·적금, 개인연금, 보장성, 저축성) 별 가입액 비중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이 흥미로운데, 대체로 예적금 가입액 비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와 보장성보험 가입액 비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상이하였다.

성영애·공은희(2007)의 연구는 저축목적에 따라 저축유형별 저축여부와 규모, 비중이 다른지에 대해서 분석한 바 있는데, 저축여부에 있어 주택마련과 결혼/상제비가 1순위 저축목적인 경우 예적금>보장성보험>개인연금>저축성보험>계>기타의 순으로 저축을 선택하고, 자녀교육비, 불의의 사고 및 질병대비, 노후생활대비, 기타가 목적인 경우 보장성보험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불의의 사고 및 질병대비가 주요 저축목적인 경우 보장성보험 저축규모와 저축비중이 예적금보다 높았으나, 다른 저축목적인 경우 대개 예적금, 보장성보험의 순으로 저축규모와 비중이 높고, 결혼/상제비, 기타 저축목적의 경우 계, 노후생활대비 목적인 경우 개인연금의 저축규모와 저축비중이 세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가계가 월저축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에 있어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은 소득이나 순자산, 부채보유 여부 등의 가계경제요인, 취업상태와 교육수준, 혼인상태, 자녀유무 등 인구사회적 요인이 있었고, 위험감수성향이나 저축목적과 같은 주관적, 심리적 요인들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본 연구는 재무설계상담이 가계의 저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특히 재무설계상담으로 인한 가계 저축의 변화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타나며, 그러한 변화의 방향과 정도가 가계의 고유한 특성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3.1 자료수집 및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국내 K재무설계전문회사의 재무설계상담 서비스를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이다. 상담 전후의 데이터가 기록된 211명의 자료 중 조사 대상자의 주요한 특성 및 주요 특성변수에 있어 결측이 있거나 오류가 있는 자료 10부를 제외하였고, 부부가 함께 재무설계상담에 참여한 경우 자산 및 소비, 저축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어 중복을 피하고자 둘 중 소득이 더 많은 대상자의 자료를 남기고 18부를 제외하여 총 183명의 자료¹⁾를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에게 수집한 자료는 재무설계상담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가족사항, 금융 및 부동산 자산 정보, 가계 소득과 저축, 소비지출정보 등이며, 상담 후 가계의 저축과 소비지출 정보를 재조사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은 10명 이상의 K재무설계전문회사 소속 재무설계사들에게 1:1로 배정되어 각자의 재무상황과 목표에 따라 상담을 받았다. 본 분석 자료는 가계 재무설계 상담을 받은 결과 실행된 가계저축의 변화 양상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이며, 가구구성 및 재무상태의 수준이 다양한 조사대상자들이 포함되어 가계의 특성에 따른 재무설계 상담의 효과를 비교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2.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재무설계상담 전후 가계 월 저축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1-1 재무설계상담 전후 가계의 월 저축의 변화(저축규모 및 포트폴리오)는 어떠한가?

1-2 재무설계상담 전후 가계의 월 저축의 다변화정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2] 가계의 특성에 따라 재무설계상담 전후 가계 월 저축변화는 다르게 나타나는가?

2-1 가계 특성에 따라 재무설계상담 전후 가계 월 저축의 변화

(저축규모 및 포트폴리오)가 다르게 나타나는가?

2-2 가계 특성에 따라 재무설계상담 전후 가계 월 저축의 다변화정도가 다른가?

연구문제1과 2 모두 기본적으로 재무설계상담을 경험한 후 나타나는 월저축 변화를 살펴보고 그 유의성을 검증한다. 이에 적합한 통계방법은 대응표본 T검정(Paired Sample T-test)이다. 이는 두 집단의 평균 차이를 검증하는 T검정의 특정한 형태로, 한 집단을 대상으로 어떠한 개입 또는 처치 전후의 수치를 비교하여 변화의 유의성을 검증하는데 활용된다. 연구문제 2에서는 가계의 특성에 따라 재무설계상담을 경험한 이후의 월저축 변화가 가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고자, 주요 가계변수 별로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다변화지수의 변화여부와 관계가 있는 요인을 밝히고자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1) 상담을 받고 자료를 제공한 183명의 조사대상자는 반드시 가계의 주된 수입원이거나 가계재무의 사결정의 결정자인 것은 아니므로 이를 고려하여 자료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3.3. 변수의 조작적 정의

3.3.1 월저축 포트폴리오

본 연구에 활용된 데이터는 재무설계사들이 실제 고객 상담에 앞서 고객으로부터 설문서를 받거나 질문하는 방식으로 수집한 자료를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코딩하여 재가공한 자료이다. 다양한 가계가 보여주는 세부적인 자산과 저축의 구성을 효과적으로 데이터화 하기 위해 금융상품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코딩하였다. 현금, 수시입출금계좌, 유동성 기타 상품을 묶어 유동성 자산으로, 투자자산은 채권형자산과 주식형자산으로 구분하되 채권형 자산에는 정기에적금, 채권, 채권간접투자, 채권형기타 상품이, 주식형자산에는 주식직접투자, 주식단기간접투자, 주식중기간접투자, 주식장기간접투자가 포함된다. 연금자산은 채권형연금과 혼합형연금, 주식형연금으로 구성된다. 월저축의 경우 유동성투자, 채권형투자, 단기주식형투자, 중기주식형투자, 장기주식형투자, 채권형연금, 혼합형연금, 주식형연금으로 구분된다. 주식간접투자를 목표 투자 기간에 따라 나누었고, 주식직접투자의 경우 대개 적립식 투자의 방식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 구분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코딩함으로써 매우 다양한 가계의 재무상황을 효율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다소 느슨한 코딩 기준이 활용되어 실제 가계의 금융자산 및 저축의 구성을 보다 자세히 알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가계의 월 저축 변화의 질적인 측면과 방향성을 보다 자세히 파악해 보고자, 위와 같이 구성된 월 저축 변수를 두 가지 관점의 포트폴리오로 재분류하였다. 첫번째는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자산군별 포트폴리오이다. 이는 자산의 위험성 및 수익성 정도에 따라 분류하는 방식이다. 각 자산군별 저축 비중을 살펴보기 위해 크게 유동성 월저축, 채권형 월저축, 주식형 월저축으로 구분하고, 데이터 상의 변수들을 이 기준에 따라 재배치하였다. 다른 하나는 재무설계의 관점을 차용하였는데 가계가 재무목표를 세우고 그 재무목표의 성격과 준비기간에 따라 계정을 달리하여 저축액을 분배한다는 측면을 고려한 것이다. 단기로 유동성을 목적으로 하는 월저축과, 중장기를 목표로 어느 정도 수익성을 기대하며 저축하는 부분, 장기적인 관점에서 은퇴를 대비해 자산을 축적하는 부분으로 구분하였다.

<표3-1> 월저축 포트폴리오의 재정의

자산군별 월저축 포트폴리오		저축기간 및 저축목적별 월저축 포트폴리오	
유동성 월저축	유동성투자	단기/유동성	유동성투자, 단기주식형투자
채권형 월저축	채권형투자, 채권형연금	중장기/수익성	채권형투자, 중기주식형투자, 장기주식형투자
주식형 월저축	단기주식형투자, 중기주식형투자, 장기주식형투자, 혼합형연금, 주식형연금	연금성	채권형연금, 혼합형연금, 주식형연금

3.3.2 포트폴리오 다변화지수

포트폴리오 다변화지수는 가계의 월저축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배분 영역

의 가짓 수와 비율의 측면에서 살펴보는 개념이다. 다변화지수는 최철(2013)에서 가계 금융 자산 배분행동에 관한 연구에서 활용되었다. 최철(2013)은 금융소비자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을 여러 가지 선택 가능한 금융자산의 범주별로 얼마나 고르게 분산했느냐 하는 관점에서 다변화를 정의하였다. 본 연구는 가계가 월 저축을 자산군, 저축기간 및 저축목적별로 어떻게 배분하고, 재무설계상담을 통해 이 구성이 변화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최철(2013)은 수시입출금, 정기예적금, 펀드, 증권, 보험으로 금융자산을 구분하였는데, 본 연구는 데이터 상의 제약과 분석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앞서 월저축 포트폴리오를 재정의한 것을 기초로 자산군 포트폴리오 측면의 다변화지수와 저축기간 및 저축목적별 포트폴리오 측면의 다변화지수를 산출하였다. 다변화지수의 산출은 각 카테고리 별로 배분된 비중을 제공한 뒤 모두 합하고 이 값을 1에서 빼주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다변화지수의 최대값은 몇 개의 카테고리에 분산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자산군별 포트폴리오와 저축기간 및 저축목적별 포트폴리오 모두 세 개의 하위 영역을 가지고 있으므로 각 하위 영역에 동일한 비중으로 배분했을 때 실현되는 다변화지수의 최대값은 0.667이다. 만약 어느 한 영역에만 몰아서 저축하고 있다면, 다변화지수는 0이 되며, 저축이 없는 경우 다변화지수의 산출이 불가능하다.

3.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다음은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²⁾이다.

<표3-2> 조사대상자(상담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83) ³⁾

	구분	빈도 (명)	비율 (%)		구분	빈도 (명)	비율 (%)
성별	남자	122	66.7	결혼여부	기혼	112	61.2
	여자	61	33.3		미혼	71	38.8
거주지역 (N=174)	서울	76	43.7	맞벌이 여부 ⁴⁾ (N=172)	기혼맞벌이	55	32.0
	수도권	64	36.8		기혼외벌이	46	26.7
	지방	34	19.5		미혼외벌이	71	41.3
연령 (N=182)	20대	50	27.5	가구원수 (N=176)	1명	54	30.7
	30대	67	36.8		2명	20	11.4
	40대	40	22.0		3명	26	14.8
	50대 이상	25	13.7		4명	59	33.5
	평균(S.D)	36.7(9.55)			5명이상	17	9.7
월 소득	200만원 미만	36	19.7	총부채 (N=178)	평균(S.D.)	2.81(1.46)	
	200~399만원	65	35.5		100만원 미만	67	37.6
	400~599만원	36	19.7		100~999만원	20	11.2
	600~799만원	20	10.9		1000~4999만원	36	20.2
	800만원 이상	26	14.2		5000~9999만원	16	9.0
					1억이상	39	21.9
	평균(S.D.)	490.27 (455.10)			평균 (S.D.)	9,906.20 (31838.19)	

2) 본 자료는 재무설계 상담을 받는 대상자 본인이 설문지에 기입하는 방식과 재무설계사가 상담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상담대상자 개인의 특성과 가계 특성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3) 데이터 수집과정에서 결측값의 빈도가 많은 항목의 경우 전체 표본 수를 별도 표기함.

총자산 (N=178)	2000만원 미만	46	25.8	순자산 (N=178)	2000만원 미만	54	30.3
	2000-4999만원	25	14.0		2000-4999만원	25	14.0
	5000-9999만원	18	10.1		5000-9999만원	21	11.8
	1억-4억9999만	44	24.7		1억-4억9999만	40	22.5
	5억원 이상	45	25.3		5억원 이상	38	21.3
	평균(S.D.)	39,527.02 (75191.56)			평균(S.D.)	29,620.83 (60203.55)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남자가 66.7%로 1/3을 차지하고 있으며, 거주지역은 서울 및 수도권이 76.5%, 기타 지방이 18.6%이다. 연령은 30대가 가장 많은 비율(36.6%)을 차지하며, 20대는 27.3%, 40대 이상은 13.7%가 포함되어 있고 조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36.7세이다. 기혼인 대상자가 61.2%이며, 미혼이 38.8%이며, 평균 가구원수는 2.81명이다. 기혼자 112명 중 절반에 가까운 55명이 맞벌이부부였으며, 기혼외벌이는 46명으로 전체의 25.1%를 차지하였다. 조사대상 가계의 월소득 평균은 약 490.27만원이며, 총자산은 평균 약 3억 9천527만원, 총부채의 평균은 9,906만원이다. 순자산 평균은 2억 9천621만원이다.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모두 중위수값(총자산의 중위수값 9,787만원, 총부채 1,000만원, 순자산 7,779만원)이 평균을 훨씬 밑돌아 자산과 부채가 많은 가계로 인해 평균수치가 많아 보이는 왜곡이 다소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본 조사대상자의 특징을 데이터 수집이 이루어진 2014년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와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상 가구 평균 가구원수는 2.9명이며, 가구주 연령 평균은 52.1세이다. 기혼 가구의 54.5%가 맞벌이 가구이다. 가계 경상소득은 4.658만원이었으며, 실물자산을 포함한 총 자산은 3억 3,539만원, 평균 부채액은 6,051만원, 순자산은 2억 7,488만원이다. 이와 비교해 본 연구 조사대상자(상담대상자)에는 젊은 층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평균 가구소득은 연환산시 약 5,883만원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가계의 총자산 평균은 약 3억 9,527만원으로 총자산은 2014 가계금융복지조사 상 평균보다 약 6천만원 가량 많고, 총부채는 약 3,850만원이 많다. 순자산은 약 2,130만원 많다. 본 연구 대상 가계의 가구주 연령이 낮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일반 가계보다 소득이나 자산이 많은 것은, 기혼 가구 중 맞벌이 비율이 다소 높고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자료가 수집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IV. 연구결과

4.1 재무설계상담 전후 가계의 월 저축 변화

4.1.1 재무설계상담 전후 가계 월 저축(저축규모 및 포트폴리오) 변화

재무설계상담 전후 가계 월 저축의 변화는 가계의 저축규모 변화와 저축 포트폴리오의 변

4) 기혼 상담대상자 중 11명에 대한 맞벌이 여부 응답 결측이 존재함.

화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재무설계상담을 받기 전 가계의 월 평균 저축액은 약 85.6만원이었으나, 재무상담 후 150.8만원으로 약 65.2만원 증가하였다. 이는 재무설계상담 전 가계 월 평균 저축액의 약 7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매우 큰 폭의 유의한 증가이다. 재무설계상담을 받는다고 해도 가계소득이 급격히 증가할 확률이 낮음을 고려하면, 재무설계안 실행으로 인한 과다한 소비지출의 감소 및 체계적인 저축실행의 결과로 저축액이 증가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저축을 구성하는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살펴보면, 먼저 자산군별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유동성 월 저축액과 주식형 월 저축액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그 중 주식형 월 저축액이 53만원 증가하여, 가계가 주식형 자산에 추가저축의 대부분을 배분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가계는 추가저축에 있어 채권형자산보다는 주식형자산을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주식형 자산은 투자 위험이 높은 만큼 보다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자산군이며, 주식(혼합)형 펀드 및 연금 등에 대해 적립식 투자 방식으로 접근하면 매입단가 평준화 효과(cost average effect)를 통해 투자 위험을 상쇄하면서 자산의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재무설계상담을 통해 이러한 투자전략이 소개되고 수행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저축기간 및 목적별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살펴보면, 단기/유동성 저축액, 중장기/수익성 저축액, 연금성 저축액 모두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전체 약 65.2만원의 증가분 중 중장기 재무목표 달성을 위한 중장기/수익성 저축에 가장 많은 약 44.2만원이 할당되었고, 단기/유동성과 연금성 저축에는 각각 10만원 남짓 추가 저축을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재무설계상담을 통해 가계는 재무목표에 따라 적절하게 월 정기저축을 배분하는 전략을 실행함을 유추할 수 있다. 특히 갑작스럽게 자금이 소요될 때를 대비하는 유동성 저축이 두 배로 늘어남으로써 향후 보다 유연하고 탄력성있는 재정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연금성 저축액 증가로 보다 효과적인 노후자산 축적이 가능해질 것이다.

<표4-1> 재무설계상담 전후 월 저축액 변화

N=183, 단위: 만원(%)

		재무설계상담 전	재무설계상담 후	Δ	t값
월 평균 저축액		85.62	150.79	65.18	-10.223***
자산군별 포트폴리오	유동성 월 저축액	9.11 (10.6)	17.32 (11.5)	8.21	-3.293**
	채권형 월 저축액	57.95 (67.7)	61.88 (41.0)	3.93	-.656
	주식형 월 저축액	18.55 (21.7)	71.59 (47.5)	53.04	-10.389***
		(100.0)	(100.0)		
저축기간 및 목적별 포트폴리오	단기/유동성 저축액	11.11 (13.0)	21.53 (14.3)	10.42	-3.963***
	중장기/수익성 저축액	52.93 (61.8)	97.17 (64.4)	44.24	-7.900***
	연금성 저축액	21.57 (25.2)	32.09 (21.3)	10.52	-5.096***
		(100.0)	(100.0)		

* $p<.05$, ** $p<.01$, *** $p<.001$

4.1.2 재무설계상담 전후 가계 월 저축의 다변화지수 변화

다변화지수의 최대값은 모든 하위 카테고리에 동일한 비중을 배분했을 때 실현되므로 본

연구에서 다변화지수는 최소값 0에서 최대값 0.6667을 가질 수 있다. 우선 가계 월저축이 없어 다변화지수를 산출할 수 없는 가계가 있어 이를 별도로 고려하여야 한다. 재무설계상담 이전에 월저축액이 없던 가계는 29가구로 전체 183 가구 중 15.8%를 차지하였으나, 재무설계상담 이후 5가구로 줄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무설계상담을 통해 전반적으로 가계의 월저축이 늘기도 했고, 특히 그동안 저축을 하지 못했던 가계가 새로이 저축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점이 재무설계상담의 의미있는 효과라 할 수 있다.

한편, 자산군별 포트폴리오 다변화지수가 0인으로 나타나 유동성, 채권형, 주식형 자산군 중 한가지로만 월저축을 구성한 가계는 92가구로 저축을 하고 있는 가구(N=154)의 59.7%였으나, 재무설계상담 후 52가구가 저축을 다변화하여 그 비중이 저축을 하는 가구의 22.5%로 줄었다. 저축기간 및 목적별 포트폴리오 다변화지수가 0인 가계, 즉 단기/유동성 저축이나 중장기/수익성 저축, 연금성 저축 중 하나의 재무목표로만 매월 저축하던 가계는 재무설계상담 전 61가구였으나, 재무설계상담 이후 31가구로 절반 가량 줄어들었다. 분석결과 재무설계상담을 통해 가계가 저축을 다변화함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재무설계상담이 가계가 새로운 저축 방법을 접하고 실천하는 통로로 기능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다변화지수의 최소값 및 최대값은 자산군별 포트폴리오 측면으로 살펴볼 때나 저축기간 및 목적별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비슷하다. 최대값은 모두 0.66으로 이는 세하위 영역에 같은 비중으로 자산을 배분했을 때 산출되는 다변화지수 최대값인 0.67에 매우 가까워 일부 가계는 자산배분관점, 저축기간 및 목적에 맞추어 저축액을 균형있게 배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변화지수를 크기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하는 값을 의미하는 중위수와 다변화지수의 평균을 비교해보면, 저축을 하고 있는 가계의 절반 이상이 한가지 자산군에만 투자하였으나 재무설계상담 후 이러한 경향이 상당히 개선됨을 볼 수 있다. 또한 가계는 자산군별로 저축액을 배분하기 보다는 저축기간이나 목적에 맞게 저축액을 배분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가계의 다변화지수 중위값 및 평균 모두 저축기간 및 목적별 포트폴리오 측면의 수치가 더 크기 때문이다.

<표4-2> 재무설계상담 전후 가계의 포트폴리오 다변화지수 개요

		재무설계상담 전	재무설계상담 후
다변화지수를 산출할 수 없는 집단 (월 저축액이 없는 집단))		29 (15.8) ⁵⁾	5 (0.03)
자산군별 포트폴리오	다변화지수=0 (빈도, %) (1가지 자산군에만 저축 배분))	92 (59.7) ⁶⁾	40 (22.5) ⁷⁾
	다변화지수 최소값/최대값	0.00 / 0.63	0.00 / 0.66
	다변화지수 중위값	.0000	.3767
	다변화지수 평균	.1524	.3026
저축기간 및 목 적별 포트폴리오	다변화 지수=0 (빈도, %) (1가지 영역에만 저축 배분)	61 (39.6)	31 (17.4)
	다변화지수 최소값/최대값	0.00/ 0.63	0.00/0.66
	다변화지수 중위값	.2778	.3750
	다변화지수 평균	.2370	.3295

5) 전체 조사대상자 가구인 183가구 기준

6) 저축을 하고 있는 가구를 기준으로 산출한 비율임. 재무설계상담 전 N=154

<표4-3> 재무설계상담 전후 가계의 포트폴리오 다변화지수 변화⁸⁾

N=153

	재무설계상담 전	재무설계상담 후	t값
자산군별 포트폴리오 다변화지수 평균(S.D.)	.1534(.2044)	.3203(.2048)	-8.329***
저축기간 및 목적별 포트폴리오 다변화지수 평균(S.D.)	.2385(.2173)	.3464(.1929)	-6.487***

* $p<.05$, ** $p<.01$, *** $p<.001$

한편, 재무설계상담 전후 가계의 포트폴리오 다변화지수 변화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자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는데, 재무설계상담 이전과 이후 모두 양의 저축을 하고 있는 153 가구를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상담을 받은 이후 가계의 자산군별 포트폴리오 다변화지수와 저축기간 및 목적별 포트폴리오 다변화지수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특히 자산군별 포트폴리오 다변화지수는 재무설계상담 전후 2배로 증가하여 더 큰 폭의 증가분을 보였다.

4.2 가계특성에 따른 재무설계상담 전후 가계의 월 저축 변화

4.2.1 가계특성에 따른 재무설계상담 전후 가계 월 저축(저축규모 및 포트폴리오) 변화

앞선 절에서는 재무설계상담 전후 가계의 월 저축 변화의 규모와 다변화정도를 살펴보았다. 본 절에서는 가계의 특성에 따라 재무설계로 인한 가계 월저축의 변화가 상이하게 나타나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많은 선행연구들이 가계의 월 저축이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는지 연구해온 바 있다.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가계의 월 저축에 영향을 준다고 밝혀진 요인들을 선별하고, 본 연구의 데이터에 적용 가능한 요소들을 파악하였다. 재무설계상담의 결과 나타난 가계 월 저축의 변화가 가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가계재무특성에 따라 상이한 경향을 보이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는 상담전후 총월저축액, 유동성 월저축액, 채권형 월저축액, 주식형 월저축액, 단기/유동성 월저축액, 중장기/수익형 월저축액, 연금성 월저축액의 차이(gap)이며,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가계재무적특성을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표4-4>는 가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재무설계상담 후 월저축의 변화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준다. 분석결과 선행연구들에서 가계저축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할 요인들 중 성별, 결혼여부, 맞벌이 여부, 연령, 가구원수 등의 요인에 따라 가계 월저축규모의 변화에 차이가 나타났으며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조사대상자(재무설계상담 경험자)의 성별에 따라 채권형 월저축액의 변화 규모가 상이하게 나타나, 여성이 상담을 받은 경우 채권형 월저축액의 규모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혼여부에 따라서도 가계 월저축에 다소 변화가 있는데, 재무설계상담을 받은 이후 미혼

7) 저축을 하고 있는 가구를 기준으로 산출한 비율임. 재무설계상담 후 N=178

8) 재무설계상담 전후 중 어느 한 쪽이라도 월저축액이 0이어서 포트폴리오 다변화지수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가 제외되었으므로 표본수가 153개임.

가계는 기혼가계에 비해 유동성 월저축액이 감소하거나 단기/유동성 월저축액의 증가 폭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생애주기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다. 미혼가계는 기혼가계보다 생애주기에 따라 장기적으로 준비하고 달성해야할 재무목표가 더 많아 유동성, 단기 목적의 저축보다는 수익성을 추구하는 투자방법을 선택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혼가계 중 맞벌이 가계는 외벌이 가계보다 총 월저축액의 증가 규모가 유의하게 크며, 특히 외벌이 가계보다 중장기/수익성 목적의 월저축액이 많이 증가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맞벌이 가계가 일반적으로 외벌이보다 소득이 높아 월저축액의 증가규모가 클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한편, 재무설계 관점에서 가계는 실직 및 질병 등을 대비해 비상예비자금을 준비하여야 하는데, 월 지출에서 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의 3~6개월치를 유동성 자산으로 준비하도록 권고된다. 맞벌이 가계는 3개월, 외벌이 가계의 경우 6개월 치의 비상예비자금이 필요한데, 이미 마련된 유동성자산의 규모를 확인할 수 없지만, 외벌이 가계의 유동성, 단기/유동성 월저축액의 증가분이 맞벌이가계보다 적다는 부분은 우려할 요소이다.

<표4-4>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재무설계상담 전후 가계 월저축 변화

* $p<.05$, ** $p<.01$, *** $p<.001$

구분		빈도 (%)	총 월저축액 gap		자산군별 포트폴리오						저축기간 및 목적별 포트폴리오					
					유동성 월저축액 gap		채권형 월저축액 gap		주식형 월저축액 gap		단기/유동성 월저축액 gap		중장기/수익성 월저축액 gap		연금성 월저축액 gap	
			평균(S.D.)	D	평균(S.D.)	D	평균(S.D.)	D	평균(S.D.)	D	평균(S.D.)	D	평균(S.D.)	D	평균(S.D.)	D
성별 (N=183)	남성	122(66.7)	67.57 (95.87)		7.71 (35.64)		12.29 (64.52)		48.00 (62.31)		10.16 (37.86)		46.48 (85.80)		11.37 (30.70)	
	여성	61(33.3)	59.52 (64.39)		9.21 (29.80)		-12.82 (90.39)		63.11 (80.52)		10.93 (30.70)		39.75 (50.31)		8.82 (21.46)	
		F값	.350		.080		4.671*		1.958		.019		.320		.338	
결혼여부 (N=183)	기혼	112(61.2)	66.02 (102.53)		13.72 (38.44)		3.63 (84.49)		49.14 (81.65)		16.52 (40.11)		38.52 (87.66)		11.46 (33.23)	
	미혼	71(39.8)	63.09 (52.96)		-4.48 (22.14)		4.38 (56.98)		59.20 (42.02)		.79 (23.13)		53.27 (50.98)		9.04 (16.50)	
		F값	0.49		7.997**		0.004		0.922		8.872**		1.653		.323	
맞벌이 여부 (N=101)	맞벌이	55(54.4)	87.45 (117.73)		18.60 (49.25)		10.18 (114.73)		58.65 (92.65)		20.96 (49.05)		55.82 (98.53)		10.66 (39.76)	
	외벌이	46(45.6)	43.39 (86.84)		10.43 (25.37)		-5.22 (33.46)		58.65 (39.35)		14.41 (31.38)		18.65 (77.54)		11.50 (27.90)	
		F값	4.426*		1.034		.773		1.296		.611		4.310*		.015	
연령 (N=182)	20대	50(27.5)	63.68 (49.77)		-2.64 (25.68)	a	-.68 (51.07)		67.00 (41.76)	b	-.34 (27.68)	a	57.76 (47.68)		50 (6.26)	a
	30대	67(36.8)	54.22 (81.56)		7.48 (15.77)	a	1.82 (99.78)		45.72 (77.41)	a b	9.42 (17.99)	a	41.85 (80.69)		67 (3.75)	a
	40대	40(22.0)	77.53 (108.7)		12.20 (32.91)	a b	-3.33 (46.67)		68.65 (87.44)	b	14.15 (34.88)	a b	42.18 (99.34)		40 (21.20)	b
	50대 이상	25(13.7)	76.64 (116.86)		25.84 (65.12)	b	30.32 (73.26)		20.48 (40.33)	a	29.04 (67.26)	b	28.48 (64.86)		25 (19.12)	b
		F값	.773		4.411**		1.240		3.596*		4.164**		.918		4.709**	
가구원수 (N=176)	1명	54(30.7)	68.67 (48.30)		.78 (19.44)	a	5.02 (54.40)		62.87 (38.87)		2.44 (22.23)	a	55.67 (50.72)		10.56 (17.61)	
	2명	20(11.4)	62.80 (10.37)		4.05 (8.86)	a	-23.05 (144.67)		81.75 (114.90)		8.05 (14.00)	a	55.60 (100.48)		-.90 (27.30)	
	3명	26(14.8)	55.88 (70.58)		1.12 (30.12)	a	2.31 (46.83)		52.46 (48.16)		2.46 (30.39)	a	35.19 (46.13)		18.23 (37.67)	
	4명 이상	76(43.2)	68.66 (108.46)		17.17 (44.80)	a	12.54 (70.34)		39.65 (74.16)		19.78 (46.78)	a	38.21 (92.27)		11.38 (30.53)	
		F값	.162		3.152*		1.183		2.525		3.127*		.809		1.771	

한편, 조사대상자의 연령과 조사대상자가계의 가구원수에 따라서도 가계 월저축 변화규모에 차이가 존재한다. 재무설계상담 이후 증가하는 가계의 총 월저축액 규모는 조사대상자의 연령에 영향을 받지 않으나 추가저축을 배분하는 양상이 다소 다르게 나타난다. 조사대상자의 연령이 젊을수록 유동성 월저축액이 감소하거나 증가분이 적고, 대신 주식형 월저축액 증가량이 많다. 저축기간 및 목적별 포트폴리오 측면으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단기/유동성 월저축액의 증가규모가 크고, 주식형 월저축액 증가액은 작다. 한편 은퇴를 대비한 연금성 월저축액 증가분은 20~30대가 40~50대보다 많은데, 재무설계상담을 통해 조기에 은퇴를 대비할 필요성이 환기된 결과로 생각해볼 수 있다.

가구원수는 가계 고정지출을 높이는 요소로 가계 월저축액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분석결과 가구원수에 따라 총 월저축액 증가 수준이 영향을 받지 않으나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경우 유동성 월저축액과 단기/유동성 월저축액의 증가규모가 유의하게 높았다.

<표4-5>는 가계의 경제적 특성에 따라서도 재무설계상담에 따른 가계 월저축 변화가 차별적으로 나타남을 보여준다. 주된 차이점을 가져오는 요인은 가계의 월소득, 총자산, 순소득 등이었고, 총부채 수준은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월 소득이 800만원 이상이 가계의 경우 재무설계상담 이후 평균 150.42만원의 월저축액 증가를 보이는데 이는 6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월소득 가계의 저축액 증가량(67.9만원)의 2배에 해당하는 큰 규모이다. 월 800만원 이상의 고소득가계는 다른 가계들에 비해 유동성 월저축액의 증가규모가 크고, 특히 연금성 월저축액의 증가가 월등히 크다.

가계 총자산 및 순자산이 5억원 이상인 집단의 경우 재무설계상담 이후 월저축액의 증가폭이 매우 크게 나타났다. 총자산과 순자산이 많은 집단에서 연금성 월저축액의 증가량도 많았는데, 일반적인 선행의 형태를 띠다기 보다는 총자산 및 순자산이 5억원 이상인 집단이 그 이하의 집단에 비해 눈에 띄게 증가규모가 컸다. 가계의 경제적 특성 중 소득은 많은 선행 연구에서도 가계저축의 규모를 높이는 요인으로 분석되어 왔다. 소득이 증가한다고 해도 가계 지출은 정비례하여 증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저축여력이 높은 고소득, 고자산계층(일반적으로 소득이 많은 가계가 포함됨)에서 가계재무설계상담 이후 저축규모의 증가가 크게 나타난다고 분석할 수 있다. 고소득, 고자산계층은 자산군별 포트폴리오 측면에서는 유동성자산과 주식형 자산에 대한 투자금액을 늘리고, 저축기간 및 목적별 포트폴리오 배분에 있어서는 은퇴를 대비한 연금형자산에 대한 투자금액을 증가시킨다.

<표4-5> 가계 경제적 특성에 따른 재무설계상담 전후 가계 월저축 변화

* $p<.05$, ** $p<.01$, *** $p<.001$

구분		빈도 (%)	총 월저축액 gap		자산군별 포트폴리오						저축기간 및 목적별 포트폴리오					
					유동성 월저축액 gap		채권형 월저축액 gap		주식형 월저축액 gap		단기/유동성 월저축액 gap		중장기/수익성 월저축액 gap		연금성 월저축액 gap	
			평균(S.D.)	D	평균(S.D.)	D	평균(S.D.)	D	평균(S.D.)	D	평균(S.D.)	D	평균(S.D.)	D	평균(S.D.)	D
소득 (N=183)	200만원 미만	36(19.7)	52.17 (41.58)	a	.86 (17.32)	a	-6.92 (40.63)		58.22 (41.21)	a b	1.97 (18.81)	a	45.78 (43.17)		4.42 (12.85)	a
	200-399만원	65(35.5)	43.92 (56.32)	a	1.34 (22.45)	a	2.88 (54.84)		40.54 (43.51)	a	2.72 (24.40)	a	34.18 (51.33)		7.85 (12.28)	a
	400-599만원	36(19.7)	52.00 (53.27)	a	7.08 (15.65)	a	4.81 (36.35)		40.11 (47.42)	a	9.03 (16.17)	a	33.25 (47.64)		9.72 (14.05)	a
	600-799만원	20(10.9)	67.90 (106.53)	a	6.50 (14.61)	a	-3.65 (70.21)		65.05 (70.47)	a b	11.50 (17.55)	a	50.40 (114.27)		6.00 (50.67)	a
	800만원 이상	26(14.2)	150.42 (148.90)	b	38.46 (70.09)	b	26.15 (156.34)		85.77 (136.31)	b	42.42 (72.51)	b	77.73 (132.98)		30.23 (48.35)	b
		F값	9.066***		7.219***		.814		2.598*		7.489***		1.815		4.237**	
총자산 (N=178)	2000만원 미만	46(25.8)	64.46 (41.64)	a b	.78 (26.76)		3.83 (44.85)		59.85 (42.67)	a b	2.09 (28.22)	a	57.11 (44.92)		5.26 (10.78)	a
	2000-4999만원	25(14.0)	31.68 (53.43)	a	8.20 (37.05)		.08 (41.89)		23.40 (38.84)	a	9.80 (37.65)	a b	16.12 (37.00)		5.76 (11.78)	a
	5000-9999만원	18(10.1)	47.56 (66.71)	a	.22 (19.12)		-3.22 (62.91)		50.56 (48.26)	a b	-.33 (21.25)	a	39.94 (53.21)		7.94 (11.56)	a b
	1억-4억9999만	44(24.7)	56.23 (72.82)	a	9.05 (18.30)		7.39 (61.13)		41.02 (55.01)	a	10.86 (20.46)	a b	38.68 (76.28)		7.91 (17.92)	a b
	5억원 이상	45(25.3)	104.02 (134.54)	b	19.11 (50.44)		4.60 (122.07)		80.29 (107.23)	b	23.40 (52.53)	b	58.42 (114.35)		22.18 (49.62)	b
		F값	3.641**		1.981		0.078		3.470**		2.567*		1.643		2.273*	
순자산 (N=178)	2000만원 미만	54(30.3)	59.74 (47.60)	a	4.09 (35.17)		-5.65 (83.91)		61.28 (74.80)		5.76 (36.18)		49.19 (46.16)		4.78 (10.49)	a
	2000-4999만원	25(14.0)	38.48 (55.87)	a	2.40 (5.97)		4.76 (51.77)		31.32 (42.75)		2.80 (8.43)		27.76 (47.67)		7.92 (13.11)	a
	5000-9999만원	21(11.8)	57.38 (75.37)	a	5.90 (25.41)		8.90 (68.70)		42.57 (47.94)		5.43 (26.92)		45.38 (63.38)		6.57 (11.89)	a
	1억-4억9999만	40(22.5)	53.85 (73.37)	a	9.50 (18.45)		-4.75 (59.88)		50.45 (60.33)		11.75 (20.79)		36.30 (74.44)		7.15 (21.06)	a
	5억원 이상	38(21.3)	111.08 (140.20)	b	18.89 (54.00)		22.13 (93.76)		70.05 (90.10)		23.71 (56.34)		61.18 (121.92)		26.18 (51.78)	b
		F값	3.671**		1.352		.915		1.500		1.953		.910		4.032**	

4.2.2 가계특성에 따른 재무설계상담 전후 가계 월 저축의 다변화지수 변화

본 절에서는 가계의 특성에 따라 재무설계상담 이후 나타나는 가계의 월저축 다변화 현상에 차이가 나타나는 분석하고자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재무설계상담을 받은 이후 가계는 전반적으로 저축의 종류를 추가, 다양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무설계상담 전후 포트폴리오 다변화정도가 증가, 감소, 변화하지 않는지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여 각 집단이 갖는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산군별 포트폴리오 다변화지수 변화 유형(변화없음, 감소, 증가)으로 구분한 집단의 인구사회적, 가계경제적 특성은 전체 표본의 특징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4-6> 재무설계상담 전후 자산군 포트폴리오 다변화 유형별 가계특성

				자산군별 포트폴리오 다변화지수 변화 유형			통계량
				변화없음	감소	증가	
특성	구분		빈도 (%)	빈도 (%)			χ^2
인구 사회적 특성	성별 (N=153)	남자	105 (68.6)	26 (72.2)	17 (70.8)	62 (66.7)	.436
		여자	48 (31.4)	10 (27.8)	7 (29.2)	31 (33.3)	
	거주지 (N=146)	서울	70 (47.9)	13 (38.2)	13 (56.5)	44 (49.4)	3.505
		수도권	49 (33.6)	12 (35.3)	8 (34.8)	29 (32.6)	
		지방	27 (18.5)	9 (26.5)	2 (8.7)	16 (18.0)	
	결혼여부 (N=153)	기혼	99 (64.7)	24 (66.7)	14 (58.3)	61 (65.6)	.519
		미혼	54 (35.3)	12 (33.3)	10 (41.7)	32 (34.4)	
	맞벌이 여부 (N=88)	맞벌이	50 (56.8)	14 (60.9)	8 (66.7)	28 (52.8)	.972
		외벌이	38 (43.2)	9 (39.1)	4 (33.3)	25 (47.2)	
	연령대 (N=152)	20대	39 (25.7)	10 (27.8)	8 (33.3)	21 (22.8)	3.477
		30대	55 (36.2)	10 (27.8)	8 (33.3)	37 (40.2)	
		40대	37 (24.3)	9 (25.0)	6 (25.0)	22 (23.9)	
		50대이상	21 (13.8)	7 (19.4)	2 (8.3)	12 (13.0)	
가계 경제 특성	소득 (N=153)	200만원 미만	27 (17.6)	10 (27.8)	3 (12.5)	14 (15.1)	9.973
		200-399만원	49 (32.0)	12 (33.3)	10 (41.7)	27 (29.0)	
		400-599만원	33 (21.6)	8 (22.2)	2 (8.3)	23 (24.7)	
		600-799만원	19 (12.4)	4 (11.1)	4 (16.7)	11 (11.8)	
		800만원 이상	25 (16.3)	2 (5.6)	5 (20.8)	18 (19.4)	
	총자산 (N=151)	2000만원 미만	30 (19.9)	10 (28.6)	4 (16.7)	16 (17.4)	7.586
		2000-4999만원	18 (11.9)	7 (20.0)	2 (8.3)	9 (9.8)	
		5000-9999만원	17 (11.3)	3 (8.6)	4 (16.7)	10 (10.9)	
		1억-4억9999만	42 (27.8)	9 (25.7)	6 (25.0)	27 (29.3)	
		5억원 이상	44 (29.1)	6 (17.1)	8 (33.3)	30 (32.6)	
	순자산 (N=151)	2000만원 미만	35 (23.2)	13 (37.1)	4 (16.7)	18 (19.6)	8.391
		2000-4999만원	20 (13.2)	5 (14.3)	3 (12.5)	12 (13.0)	
		5000-9999만원	19 (12.6)	6 (17.1)	3 (12.5)	10 (10.9)	
		1억-4억9999만	40 (26.5)	5 (14.3)	7 (29.2)	28 (30.4)	
		5억원 이상	37 (24.5)	6 (17.1)	7 (29.2)	24 (26.1)	
	부채 (N=151)	100만원 미만	58 (38.4)	15 (42.9)	10 (41.7)	33 (35.9)	8.122
		100-999만원	16 (10.6)	7 (20.0)	3 (12.5)	6 (6.5)	
		1000-4999만원	27 (17.9)	5 (14.3)	5 (20.8)	17 (18.5)	
		5000-9999만원	12 (7.9)	2 (5.7)	2 (8.3)	8 (8.7)	
		1억원이상	38 (25.2)	6 (17.1)	4 (16.7)	28 (30.4)	

요약하면 재무설계상담 전후로 가계의 월저축 포트폴리오는 전반적으로 유의하게 다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상담을 받은 가계의 특성에 따라 포트폴리오 다변화 여부 및 방향에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재무설계상담 이후 가계의 월저축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저축규모 및 포트폴리오 다변화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가계의 특성에 따라 그러한 변화에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일반적으로 재무설계상담은 가계의 월저축규모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설계상담을 전후로 조사대상 가계의 평균적으로 약 65.2만원의 월 저축액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재무설계상담을 통해 가계는 불필요한 소비나 미파악 지출을 줄이고, 재무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저축액을 증가시키는 방향의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됨을 알 수 있다.

둘째, 가계가 재무설계상담 이후 월저축을 증대시키는 과정에서 자산군별, 저축기간 및 목적별로 월 저축을 적절히 분배하는 과정을 거친다. 일반적으로 가계가 재무설계상담의 결과로 월저축액을 증대하기로 결정한 후 그 증가분을 어디에 배분하는지 살펴본 결과 자산군별로 구분한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가계는 유동성 월저축액과 주식형 월저축액을 유의하게 증가시켰다. 유동성 월 저축액의 경우 가계 비상자금이나 사용편의를 위한 자산을 마련하는 것이며, 자산군 선택에 있어 채권형 보다는 주식형 자산에 대한 저축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저금리 기조 하에서 채권형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지고, 재무목표의 달성을 위해 보다 수익성 높은 자산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

셋째, 가계는 재무설계상담 이후 가계 월저축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의사결정을 수행한다. 재무설계상담을 전후로 가계 월저축의 다변화정도를 평가하는 다변화지수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자산군별 포트폴리오 다변화지수와 저축기간 및 목적별 포트폴리오 다변화지수가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재무설계상담의 결과로 효과적인 자산관리를 위한 자산배분 전략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다양한 재무목표를 종합적으로 대비하는 경향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재무설계상담의 결과로 가계의 월저축규모가 증대된 것은 양적측면의 재정적 복지 달성과 관련된 의미있는 결과이다. 나아가 이와 같이 가계가 저축 수단 및 목적을 다양화한다는 것은 가계 저축의 질적 측면에서 새로운 발견이 될 수 있다.

넷째, 가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재무설계 상담 후 월저축 포트폴리오 배분이 다르게 이루어진다. 가계가 재무설계상담의 결과로 월저축 총액을 증가시키고 이를 월저축 포트폴리오에 배분함에 있어 가계특성에 따라 다소 상이한 특징을 보인다. 분석결과에서 보듯 재무설계상담 이후 전반적으로 가계의 유동성 월 저축액과 단기/유동성 저축액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이를 미혼가계와 기혼가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미혼 가계는 기혼가계와 달리

유동성 저축에 할애하는 금액을 줄이거나 증가폭이 유의하게 적은 경향을 보였다. 이 밖에 조사대상자의 성별이나 연령대, 맞벌이 여부나 가구원 수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가계저축의 변화양상은 차이를 보였다. 재무설계상담의 진행과 솔루션의 실행과정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징들은 저축 실행에 있어 제약요인일 수도 있고, 단순히 저축 목적과 니즈의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일 수도 있다. 재무설계사는 재무설계 솔루션을 제안함에 있어 이를 잘 구분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가계의 경제적 특성에 따라 재무설계 상담 후 월저축 포트폴리오 배분이 다르게 이루어진다. 가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외에 가계의 경제적 여건과 상황 역시 저축실행에 영향을 주고 있다. 경제적 요인인 월소득과 총자산, 순자산 등의 요인들은 저축여력을 결정하는 주된 요소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특히 총자산 및 순자산이 5억원 이상으로 분류된 집단은 그 이하의 집단과 가계저축의 양상이 매우 상이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을 통해 이들 가계는 저축과 자산관리에 있어 다른 가계와는 차별적인 니즈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재무설계사는 경제적 특성에 따라 가계의 저축니즈가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하고 재무설계상담 진행과정에서 이에 따라 저축, 투자안 선택, 세금관리 등 차별화된 솔루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연구결과 가계가 재무설계상담 이후 월저축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경향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경향은 가계의 특성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계가 월 저축액을 늘리는 등의 의사결정을 실천하는 것은 가계가 처한 상황에 영향을 받는 부분이지만, 몇 가지 하위 영역에 얼마나 분산하는가에 대한 부분은 보통 재무설계사의 제안을 따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재무설계사의 역량과 포트폴리오에 대한 관점에 따라 가계의 저축 구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견지하고 가계재무상태의 질적, 양적측면이 골고루 개선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활용된 데이터는 재무설계를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선별된 것이 아니라 재무설계상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보를 제공하기로 동의한 가계의 자료라는 점에서 내용 상 편의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재무설계사와 상담을 받은 가계로부터 데이터를 얻는 과정에서 일부 표본에 가계특성이 누락되기도 하였고, 저축 및 소비지출의 범주를 넓게 제시함으로써 보다 상세히 가계 저축 행태를 살펴보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이러한 요인으로 인하여 보다 정밀한 통계적 방법론을 적용하여 재무설계 상담 전후의 가계 월저축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살펴지 못한 한계가 있다.

가계저축의 측면에서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금융상품 및 저축수단의 분류를 보다 세밀화하여 자료를 수집할 필요성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자료를 수집할수록 저축 포트폴리오의 질적 측면에서 다양한 분석이 가능해 질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재무설계상담을 전후한 2개 시점 간 가계 월저축액의 변화에 대해서만 다루었으나, 재무설계상담이 가계 재무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큰 그림에서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산상태의 변화를 함께 측정하여 연구하여야 하며, 분석의 면밀성을 위해 상담 후 자료를 다시 측정하는 기간을 통일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백은영(2009).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가계 재무구조와 저축성향 분석. 소비자학연구, 20(2), 1-25.
- 성영애(2012). 재무교육 및 재무상담에 대한 소비자요구와 선호분석. 소비자학연구, 23(2), 85-105.
- 성영애(2014). 현금흐름의 관점에서 살펴본 가계저축패턴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25(3), 163-184.
- 성영애, 양세정, 이희숙, 차경옥, & 최현자. (2006). 소비자재무설계 및 상담 교과과정의 발전적 운영을 위한 小考. 소비자정책교육연구, 2(1), 21-39.
- 심영(1998). 가계의 저축과 차용의 상관관계 분석. 소비자학연구, 9(1), 57-73.
- 양세정(1998). 주부취업상태와 가계저축포트폴리오. 가정문화연구, 12(단일호).
- 양세정(2005). 맞벌이 소비지출유형별 가계경제구조 분석. 사회과학연구, 20(단일호), 1-23.
- 양세정·주인숙(1994). 가계저축유형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1), 62-71.
- 오종윤(2012). 40대 표준가계 재무설계 사례 연구. Financial Planning Review, 5(3), 117-131.
- 오종윤·이지영·최현자·박주영(2014). 재무설계상담이 재무복지수준 향상에 미치는 영향: 중소기업 종업원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연구, 36(1), 1-21.
- 오종윤·최현자(2010). 재무설계를 통한 재무복지의 향상에 관한 연구, Financial Planning Review, 3(2), 1-18
- 오종윤·최현자(2012). 재무설계상담이 가계재무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Financial Planning Review, 5(1), 1-32.
- 오종윤·최현자·이지영(2014). 재무복지수준으로 측정한 재무설계상담의 효과-은퇴설계에 적용을 중심으로. Financial Planning Review, 7(1), 149-171.
- 정운영(2008).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선택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Financial Planning Review, 1(1), 81-108.
- 조혜진·최재경(2015). 저축 및 투자목적과 금융자산선택 간의 관계 연구. Financial Planning Review, 8(3), 119-153.
- 주소현·조영란(2012) 소비자의 재무상담 활용현황 및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소비문화연구 15(1), 1-20
- 최철(2013). 우리나라 금융소비자의 금융자산 배분 행동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24(1), 297-325.
- 허경옥·백은영·정순희 (1997). 돈에 대한 태도유형별 가계의 저축행동. 소비자학연구, 8(2), 43-59.
- 한국FPSB(2015) 재무설계 개론, 한국FPSB
- Elder, H. W., & Rudolph, P. M. (1999). Does retirement planning affect the level of retirement satisfaction?. Financial Services Review, 8(2), 117-127.
- Lusardi, A., & Mitchell, O. S. (2005). Financial literacy and planning: Implications

for retirement wellbeing. Michigan Retirement Research Center Research Paper No. WP, 108.

Mason, J., & Poduska, B. (1986). Financial planner or financial counselor: The differences are significant. *Journal of Consumer Affairs*, 20(1), 142-147.